

한국타이어(161390)

매수

목표주가 81,000원
주가(9/2) 60,200원

글로벌 타이어 회사의 품격

벤츠 S클래스, BMW 5시리즈로 OE 납품 확대

한국타이어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벤츠 S클래스와 BMW 5시리즈에 신차용 타이어(Original Equipment; OE) 납품을 개시한다고 밝혔다. 이로써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3사의 주력 모델에 모두 납품하게 되는 셈이다(벤츠: 2012년부터 E, S클래스, BMW: 2011년부터 3, 5시리즈, 아우디: 2006년부터 A4, A6). 한국타이어의 OE 고객 중에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해외 고객 수는 24개사에 달하며 전체 OE 물량의 55%를 차지한다.

미국 공장 연내 부지 선정

미국 공장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진행상황도 제시했다. 테네시, 사우스캐롤라이나, 조지아 3개 주와 부지 선정에 대해 협의 중이며 연말쯤 확정 될 예정이다. 참고로 한국타이어의 북미시장 매출은 19%에 달하나 생산기지는 아직 없다. 미국 공장의 규모는 연산 500만개로 시작해 1,000만개로 점차 확장될 계획이다(2013년 생산능력의 5~10%). 구체적인 착공 시점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2014년 초 즉시 착공을 할 경우 2015년 하반기에 완공 될 것으로 전망한다.

글로벌 타이어 회사로의 비전 제시로 투자심리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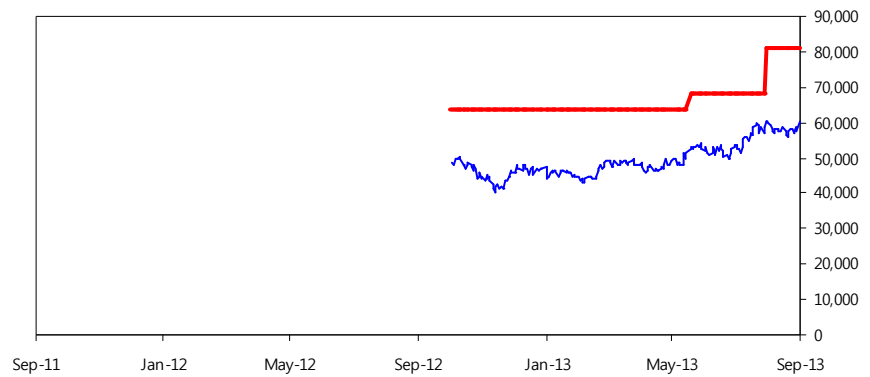
신규 OE는 납품 물량이 크지 않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. 게다가 미국공장 증설 소식은 이미 시장에 알려진 소식이다. 그럼에도 이번 기자간담회는 투자심리 개선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. 글로벌 top-tier 타이어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납품과 전 세계에 걸친 생산기지 구축이 필수인데,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 내용과 비전을 구체화하고 시장과 공유했기 때문이다.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81,000원을 유지한다(12MF EPS에 PER 11배 적용).

김진우, CFA 3276-6278
jinwoo.kim@truefriend.com

서성문 3276-6152
sungmoon.suh@truefriend.com

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내역

종목(코드번호)	제시일자	투자의견	목표주가
한국타이어(161390)	2012.10.02	매수	64,000 원
	2013.05.20	매수	68,000 원
	2013.07.31	매수	81,000 원



■ 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2013년 9월 2일 현재 한국타이어 종목의 발행주식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의 내용 일부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상기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■ 기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현 주가 대비 주가등락 기준임

- 매 수 : 현 주가 대비 15% 이상의 주가 상승 예상
- 중립 : 현 주가 대비 -15~15%의 주가 등락 예상
- 비중축소 : 현 주가 대비 15% 이상의 주가 하락 예상
- 중립 및 비중축소 의견은 목표가 미제시

■ 업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해당 업종의 유가증권시장(코스닥) 시가총액 비중 대비 포트폴리오 구성 비중에 대한 의견임

- 비중확대 :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(코스닥)시가총액 비중보다 높이 가져갈 것을 권함
- 중립 :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(코스닥)시가총액 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권함
- 비중축소 :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(코스닥)시가총액 비중보다 낮게 가져갈 것을 권함

■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,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할 수 없습니다.

■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.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■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